

제6절 화성2리(花城二里)[속명: 범상(凡祥), 동막(東幕)]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으로 화성4리[성내]와 화성3리[용장동]가 있고, 남쪽은 울진읍 명도2리 아산과 인접하였으며, 서쪽은 북면 소곡2리 들재(石嶺)와 접하여왔다. 그리고 북쪽은 북면 고목1리 지정골(芝亭谷)과 인접하였다. 마을회관은 2002년에 건립됐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 감대(甘垓)

1750년경에 영양인 남정훈(南正薰)이라는 선비가 이 마을을 개척하여 살았고, 그 후에 경석정(景石亭)을 지어 후진을 육성하였는데, 그 정자 밑에 거울 같은 맑은 물이 있었으므로 감대라 하였다고 전해오고 있다.

2) 동막(東幕)

1650년경에 안씨(安氏) 일족(一族)이 동쪽에 움막을 지어 처음으로 살았다 하여 동막이라 불렀다 한다.

3) 범상(凡祥)

약 500년 전에 안씨(安氏)가 있으니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1520년에는 평창 이씨(平昌李氏)가 입주하여 살면서 상(祥)스러운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한 도승이 말하였는데, 이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을 이름을 범상(凡祥)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그 후 울진 장씨(蔚珍張氏)가 입주하면서 장씨(張氏) 집성촌(集姓村)을 이루고 있다.

4) 잿범상(잿凡祥)

범상골 앞 재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잿범상골이라 부른다.

3. 가구 분포

총 53세대가 거주하며 울진 장씨(蔚珍張氏), 평창 이씨(平昌李氏), 담양 전씨(潭陽田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돌재(石嶺)

울진읍 북면 죽변면의 경계 지점에 있는 재(嶺)로 옛날 울진 해안지방에서 한양으로 가는 12령 고갯길 중 첫 번째 재(嶺)다.

2) 월랑천(月廊川)

어느 부자가 행랑 앞을 흐르는 개울이 맑고 깨끗하여 월랑천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이 월랑천은 범상과 감대에서 각각 발원하여 합류되어 울진 남대천으로 유입된다.

제7절 화성3리(花城三里)[속명: 매눈, 용장(龍場)]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후정4리와 인접하고, 3km 거리에 죽변면 소재지가 있다. 남쪽은 화성4리 성내가 있고 앞산인 나비산이 있으며, 서쪽은 마을 뒷산인 솔치봉과 소백산이 있고, 북쪽은 북면 고목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3년에 건립됐다.

2. 마을의 역사

1510년경에 해주 최씨(海州崔氏) 유길(有吉)이라는 사람이 개척하여 정착하였다고 전하며, 그 후 1519년경에 남평(南平), 문습(文習)이라는 사람이 입주하여 살아왔다.

1) 매눈(鷹眼)

1600년경부터 울진과 부구를 잇는 남북과 동서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 잡은 마을로서 주막도 있고 상인들이 드나들어 경기가 좋았던 곳이었다. 산모퉁이에 매눈을 닮은 바위가 있다 하여 마을 이름을 매눈이라 하였는데, 가끔 살인사건이 발생함으로 이 바위를 없애 버렸다고 전해오고 있다.

2) 용장(龍場)

마을 뒷산인 소백산과 마을 앞의 나비산이 연못에 비쳐 용(龍)과 같다 하여 마을 이름을